

4. 마을의 특징

1) 구정이골(九鼎谷)

솔 아홉 개를 걸어놓고 밥을 짓는 산세(山勢)라 하여 구정이골(九鼎谷)이라 부른다.

2) 금산터, 금상이터(金象谷)

답운재(踏雲峠)에서 남쪽 1km 거리에 있는 이곳에 금은(金銀)이 많이 날 것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 답운재(踏雲峠)

해발(海拔) 600m인 이 고개(嶺)는 36번국도가 동서(東西)로 태백산맥(太白山脈)을 넘는 분수령(分水嶺)이다. 동해로 흘러드는 냇물은 불영사계곡(佛影寺溪谷)의 상류(上流)가 되고, 서쪽으로 흐르는 냇물은 낙동강 상류가 된다. 이 고개에는 늘 안개가 끼어서 구름을 밟고 넘는 고개라 하여 답운재(踏雲峠)라 부른다.

4) 성황당(城隍堂)

거응동(巨應洞)과 남회룡(南回龍)에 성황당이 있어 매년 제사를 올리고 있다.

5) 순직경찰관 위령비(殉職警察官 慰靈碑)

한국전쟁 중 수복(收復) 당시에 이곳에서 북한 패잔병(敗殘兵)과 교전(交戰) 하다가 경찰관 6명이 그들에게 생포(生捕)되어 순직(殉職)하였다.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경우회 [회장 : 임성률(林成律)]의 노력으로 1988년 6월 25일에 답운재(踏雲峠)에 위령비를 세우고 제막(除幕)하였다.

제3절 삼근1리(三斤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군청 소재지에서 36번 국도(國道)를 따라 서쪽으로 24km 거리에 있으며, 금강송면 소재지 마을로 불영계곡(佛影溪谷)의 위쪽에 있는 광천계곡(光川溪谷)이 마을 앞으로 달리고 있다. 마을의 서쪽은 통고산(通古山), 남쪽은 천축산(天竺山), 북쪽은 세덕산(細山)과 접하며

남향(南向)의 마을이다. 마을회관은 2003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009년에 건립된 금강송면 보건지소가 있다.

2. 마을의 역사

1) 경토(京土)

일제강점기에 생긴 마을로 경성토목주식회사(京城土木株式會社) 사무실이 있는 곳이라 하여 경토(京土)라 부르게 되었다.

2) 면전(棉田)

면내(面內)에서 제일 먼저 목화(木花)를 심은 밭이 있다 하여 면전(棉田)이라 불렀다.

3) 사택(社宅)

일제강점기 때에 금정광업소(金井鑛業所) 종업원 사택(社宅)이 있었다 하여 사택(社宅)이라 부른다. 50년이 넘는 지금까지 남은 목조연립식건물(木造連立式建物)이 남아있으며, 울진중학교 삼근분교(三斤分校)가 폐교되었다.

4) 새터(新基)

1850년경에 새로이 입주가옥이 생겼다 하여 “새터”라 불러왔다. 광천변(光川邊)에 몇 집씩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지만 관광휴게소인 “샐터쉽터”가 생기면서 앞으로 불영사계곡(佛影寺溪谷)의 관광명소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을이다.

5) 삼근1리 수평(水平)마을

1560년경에 배진사(裵進士)라는 선비가 개척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개척 당시의 수평(水平)마을은 광천(光川) 냇가 저지대(低地帶)인 들판에 마을을 이루고 살아왔으나 1936년(丙子年)의 대홍수(大洪水)로 마을 전체가 유실(流失)되고 지대가 높은 곳으로 옮긴 것이 수평(水平)마을인데 지금도 개척 당시에 부르던 수평동(水平洞)을 그대로 부르고 있으며 앞들은 수평들이라 부르고 있다.

삼근리(三斤里)의 어원(語源)은 서쪽으로 높이 솟은 통고산(通古山), 남쪽의 아름다운 천축산(天竺山), 북쪽의 세덕산(細德山)의 세 뿌리가 모인 곳이라 하여 삼근(三根)이라 하였고 그 후 1914년 행정구역개편(行政區域改編) 때 삼근(三斤)이라 하였다 하며, 또 다른 일설은 산간오지(山間奧地)에서 농사를 지으면 잘 썩는다고 하여 조선시대부터 써근이라 불렀으나 행정구역개편 때 써근이와 비슷한 삼근(三斤)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이 마을에 일본인(日本人)이 경영하는 금정광업주식회사(金井鑛業株式會社)와 경성토목주식회사(京城土木株式會社)가 있어 광업(鑛業)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벌채공(伐採工) 등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곡간오지(谷間奧地) 마을의 농지(農地) 또는 평지에 가옥이 들어서면서 1,000여 세대가 넘는 광산촌(鑛山村)으로 변하였다. 최근에 환경부가 조성한 생태보전지역관리센터가 있다.

3. 가구 분포

총 153세대가 거주하며 영양 남씨(英陽南氏), 청주 사씨(淸酒史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삼척 김씨(三陟金氏), 온양 방씨(溫陽方氏) 등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박달골

통고산(通古山)에서 발원(發源)하여 박달재를 감돌아 내려가는 계곡으로 계곡의 물이 차고 깨끗하여 깨끗한 물에서만 자라는 버들묵이라는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2) 보국대(補國隊)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내에서 강제로 징용(徵用)한 노동 인력을 보국대(補國隊)라 하여 광물채취(鑛物採取), 도로공사, 산림벌채, 송탄유(松炭油) 생산, 산머루넝쿨 채취, 건축 물자 운반 등의 작업에 종사케 하였다. 이들의 숙식(宿食)은 자부담으로 몇 사람씩 모여 통나무 움막집을 짓고 생활하면서 수십 일(數十日)씩 노역에 종사하였다.

3) 사랑바위[미륵바위]

동쪽 마을 입구 36번 국도변에 있는 높이 약 4m의 바위로 몸통 하나에 머리가 2개로서 흡사 남녀(男女)가 포옹하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사랑바위라 부르고 있다. 이 바위 주변에는 오래된 노송(老松)들이 있고, 광천(光川)이 내려다보이는 주변의 경관(景觀)은 절경(絶景)이다. 성황당(城隍堂)이 없는 이 마을은 이 바위를 마을의 수호신(守護神)으로 믿고 있다.

4) 승지골(僧地谷)

옛날 도승(道僧)이 이곳 계곡에 기거하며 수도(修道)하였다는 전설(傳說)이 있어 이곳을 승지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곳은 자연경관(自然景觀)이 수려(秀麗)하고 승지골에서

광천(光川)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더욱 아름다워 매년 여름이면 이곳을 찾는 피서객(避暑客)이 늘어나고 있다.

5) 한농식품(韓農食品)

경토(京土)에 있는 면내(面內) 유일한 식품공장(食品工場)이다. 이 공장은 1970년대에 새마을공장으로 설립하여 산림에서 수집한 관솔을 원료로 송탄유(松炭油)를 생산하였으나 경영부실로 가동이 중단되고 공장이 폐허되었다.

그 후 한농회(韓農會)에서 이 공장을 매입 수리하여 종업원 사택을 공장부지 내에 짓고 20세대 41명의 인원이 살고 있으며, 생산품으로는 국수[메밀국수, 쫄국수, 통밀국수, 두충국수, 도토리국수], 빵, 과자 등을 생산하는 식품공장이다.

제4절 삼근2리(三斤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금강송면 소재지(所在地)인 삼근1리와 경계를 하고, 서쪽은 쌍전1리, 남쪽은 통고산(通古山), 북쪽은 세덕산(細德山)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3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산간(山間)마을이다. 마을회관은 1989년에 건립된 후 최근 개축하였다.

2. 마을의 역사

1580년경에 청주 사씨(淸州史氏)와 남양 방씨(南陽房氏)가 개척하였다고 전하며 그 후 손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자연부락으로는 새점(新店), 방촌(芳村), 새뱅이(新芳)가 있다.

1) 방촌(芳村)

통고산(通古山) 자락에 자리 잡은 동북향(東北向)의 아담한 마을로서 아름답고 풍요(豐饒)롭다고 하여 방촌(芳村)이라 불렀다고 한다.

2) 새뱅이(新芳)

1750년경에 순흥 안씨(順興安氏)가 새로이 마을을 개척하였다 하여 “새뱅이”라 부르다가 그 후 신방(新芳)으로 바꾸었다.